

청보리·밀 등 '겨울 농사' 2배 늘린다

정부, 5년간 1조7천억 투자 66만ha로 확대

국제 곡물가 강세에 대응,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겨울농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4일 겨울철에도 농사 짓는 논 면적을 현재 34만ha에서 2012년까지 66만ha로 32만ha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34만ha에 ▲녹비(일·즐기 등을 퇴비로 쓰는 작물) 13만ha ▲청보리·호밀 등 사료작물 9만ha ▲채소 6만ha ▲보리류 5만ha 등을 길렀다.

농식품부 목표에 따르면 2012년 사

료작물, 녹비작물, 밀 재배면적은 각각 26만ha(17만ha 증가), 22만5천ha(9만5천ha), 1만4천ha(1만2천ha)로 확대된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도 1천500ha에서 4만5천ha로 4만3천ha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조사료(건초·짚 등 섬유질 사료)로 가공, 축산농가에 공급할 500ha 규모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500곳을 육성하고, 사료작물도 경관보전 작물제 대상에 포함시켜 재배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100만원/ha) 메워줄

방안이다. 경관보전작물제는 보기에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농협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도시 공원·고수부지 등에 유채·청보리 등을 심는 '그린 코리아 운동'도 전개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비료지원 등에 모두 1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옥수수·콩 등 수입곡물 대체(8천940억원), 농가소득 증가(4천300억원) 등 연간 1조3천억원에 이르러, 2012년 기준 27% 정도로 추정되는 곡물자급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사료 자급률은 78.4% 수준이고, 특히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밀의 경우 자급률이 0.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옥수수·콩·밀 등의 가격이 1년 사이 66~92% 뛰면서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와 밀가루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국내 산과의 격차가 줄었다고 해도, 지난 3월 기준 국내 밀가격(kg당 856원)이 미국산(576원)의 1.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 겨울농사 확대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 손잡고 포도밭기 체험이 포도밭기 체험을 하고 있다.

4일 농협과 (사)한국포도생산자협회가 포도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 정계광장에서 개최한 포도데이 선포식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포도밭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 기현상

국제 휘발유가 원유가

국제 휘발유 가격이 원유가격을 밑도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4일 정유업체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국제 휘발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20.25달러였는데 반해 두바이 유류 현물가격은 배럴당 120.40달러로, 휘발유 가격이 원유가격보다 배럴당 0.15달러 낮게 거래됐다.

이는 고유가와 경기둔화로 휘발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두바이 유와 국제 휘발유 가격이 역전된 것을 두고, 원유가격 하락 안정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외환보유액 105억달러 줄어

사상 최대...4개월 연속 감소

외환보유액은 올해 3월 18억8천만 달러 증가에서 4월 37억6천만 달러 감소로 전환한 뒤 5월(-22억8천만 달러)과 6월(-1억달러)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공격적인 시장개입에 나섰다.

이들 외환당국이 8일에 20억달러, 9일에 50억달러 안팎의 달러 매도물량을

광주·전남 전세자금 대출 급증

주택금융공사 상반기 567억 대출 보증... 전년 대비 5% 증가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올 상반기 광주·전남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광주·전남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준 금액은 567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39억8천만 원)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전세선호 추세가 뚜렷했다.

특히 광주는 올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액이 264억4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9.2%나 증가했다. 시장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내집 마련'을 미루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7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코스피 외국인 지분 30% 밀돌아

외국인 지분 30%를 밑도는 현상이 이어졌다.

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현재 코스피시장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은 242조8천244억원으로

신축 공동주택 11만가구 공시가격 공개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11만3천가구의 가격 공시를 위해 5일부터 20일간 주택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에 새로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전국 아파트 10만173가구를 비롯, 연립주택 2천70가구, 다세대 1만1천168가구 등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각각 1천715가구, 1천381가구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다.

국제보정기

본점 (동구광남로388동) (062)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227-9970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CBS 크루즈 성지순례

www.cbscrui.com

~ 사도바울 탄생 2000년 기념 ~

10월28일, 29일, 30일 총 3박! (9박10일-12박13일)

대형 선박에 의한 최대 규모의 선박 단독 출항, 최강 승선 경험

선박: CBS 24,000톤급 대형선박, 승객 1,000명, 승무원 700명

객실: 2인실 3,800,000~ 4,200,000~ 4,800,000~
 가족실 3,800,000~ 4,700,000~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하는 CBS 크루즈 성지순례

광주CBS 총무국 (062)376-8500~1